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43

□ 제안이유

정부의 지방상수도요금 체계개선추진지침을 근간으로 현행 업종 적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5개 업종을 3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누진단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물 사용량 위주로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예방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업종통합·누진단계체계개선 방법
 - 가정용 : 6단계 → 3단계
 - 업무용,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 5단계
 - 옥탕1종, 옥탕 2종을 대중탕용으로 통합4단계
- 업종통합 및 누진단계 체계개선을 통한 상수도요금의 전 업종별 요금을 2001년 결산기준 평균 판매단가 10.1% 인상 - 상수도요금 업종별 신·구 대비표(별첨)
- 옥내누수요금의 일부감면 신설(수용가 귀책성 사유는 제외)
-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의 요율 적용(높은 요율 업종 → 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
-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 3% 하향조정(5%→3%)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01. 6. 28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수도요금을 업종통합과 누진단계 체계를 민원예방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업종통합 및 누진체계개선 효과로 10.1%의 요금인상을 예상하고 있음.
- 업종통합은 새로운 업태의 잦은 출현으로 영업용과 업무용과의 적용한계가 불분명하고,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대중탕과 특수 목욕장업을 구분

하지 않고 있어 옥1종과 옥2종의 구분이 곤란하며 동일 건물에 2이상의 업종 입주시 높은 요율 적용으로 민원 빈발하고 요율이 낮은 업종 적용 요구 및 차등요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통합한 것이며

- 누진체계 개선은 가정용은 3단계 이내 요율을 적용하는 가구가 목포시전체가구의 76%로 현행 누진체계는 6단계까지 분류하여 실효성이 낮고 전체대비 가정용 사용량이 54%이지만 급수수익은 39%이며, 영업용은 타 업종에 비해 과중한 요금부담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는 점에서 개선하려는 것임.
- 원수대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정부담에 대처하기 위해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상수도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병 섭 (인)